

現代物理學과 退溪思想**

金 東 涸*

퇴계는 主理論者로서 알려져 있다. 그가 주리론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까닭은, ‘理’를 “至虛而至實 至無而至有 動而無動 靜而無靜”의 실재로 보며, 그것을 ‘不動의 動者’, 혹은 절대자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계에 의하면 ‘理’는 음양오행 만물만사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不增不減이요, 음양오행 만물만사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자요, 세상만물에 사로잡히지 않는 ‘理’가, 무슨 까닭으로 ‘氣’와의 渾然一體가 되어 세상만물을 이루는지 알기 어렵다. 퇴계의 ‘理’는 ‘天人’을 일관하는 절대자로서, 자연과 인간을 실현하는 존재원리라 할 것이다. 사실, 퇴계는 인간을 통하여 ‘理氣’를 해명함으로써, 그것을 자연에까지 확장하였으며, 율곡은 자연을 통하여 ‘理氣’를 해명하고, 그것으로 인간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퇴계는, 율곡에 비하여 규범적이요, 인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혹은 인간의 역사는, 자연, 혹은 자연의 역사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자연사의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야 5000년을 넘지 못하고, 인류의 출현도 200 내지 300만년 전에서야 겨우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는 매우 길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46억 내지 50억년의 긴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로부터 인간존

* 충북대 화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69호(1991) 게재논문

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지만, 인간의 원리를 통하여 자연과 우주를 해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연과 우주는 규범적 체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대물리학의, 이른바 ‘인간원리’에 의하면, 우주가 오랫동안 인간의 출현을 기다려 온 것이지, 인간이 우주의 출현을 기다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법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자연의 이해와 해명으로부터 가능하다 하겠으며, 이것은 퇴계의 사유과정과 반대되는 것이다. 퇴계는 인간의 완성과 통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퇴계는, 鄭之雲의 《천명도설》 속에 있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문구를 개작하여,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함으로써,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이라는, 이른바 사단과 칠정, ‘理’와 ‘氣’를 분별하고, 주자의, 소위 “理與氣決是二物”이라는 사상을 철저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단이라 함은, 일찍이 맹자가 말한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며, 칠정이라는 것은, 《예기》에 나오는, 이른바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의 일곱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理’를 이성이라 한다면, 氣를 감성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理’와 ‘氣’를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형이상학에 머물도록 한 것 같다. 사단과 칠정에 관한 그의 이론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보완되고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但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耳

다음과 같은 뜻이다. “단, 사단은 理가 발하여 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요, 칠정은 氣가 발하여 理가 이것을 타는 것이다.” 이처럼 사단도 物에 感하여 움직임은 칠정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이원적 주장의 화해와 종합의 한 면모라 할 수 있다. 퇴계의 학문의 진면목은, 그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있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고 실현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그는 知行

併進을 주장하였으며, 그 知와 行을 겸하며, 靜과 動을 관통하여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이 ‘誠’이요, 이것이 ‘참’이다. 그리고 ‘성’에 이르는 노력으로서 하나의 ‘敬’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경’은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그리고 모든 사물의 존재원리요 도덕적 궁극목표다. 퇴계는 理氣二元論으로서의 理氣互發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理’, 즉 太極을 自動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말한다.

太極之有動靜 太極自動靜也 天命之流行 天命自流行也 豈復有使之者歟

“태극이 동정을 가진다는 것은, 태극이 스스로 동정하는 까닭이요, 천명의 유행은 천명이 스스로 유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다시 이를 부리는 자가 있으랴.” 이런 뜻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태극이나 천명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퇴계의 ‘理’는 Aristoteles에 있어서의 ‘不動의 動者’, 혹은 Platon의 idea에 비유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不動의 動者’라는 개념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현대과학은, 변화의 원인이 먼저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우주가 만약 전체로서 정지하여 있는 것이라면, 우주는 영원히 그대로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신은 순수사유로서 행복과 ‘자족’ 가운데 있고, 실현되지 않는 목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한다. 우리들은 ‘不動의 動者’를 신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Aristoteles는 이것을 신의 존재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실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不動의 動者’는 하나이며, 이것은 직접 하나의 원운동을 일으킨다. 원운동은 제일차적 운동이요, 또한 유일의 계속적이며 무한한 운동이다. 그리고 ‘原動者’는 부분도 크기도 가지지 않으며, 지구 주위에 존재한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원동자는 불가분의 것이요, 부분이나 크기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Aristoteles는 커다란 형이상학자라 할 수 있다. Aristoteles는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의 신도 형이상학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

다.

퇴계는 주자의, 이른바 無造作의 ‘理’를 能造作의 ‘理’로 하고, 이것을 다시 ‘體’와 ‘用’으로 이분하였다. 그리하여, 무조작을 ‘理’의 ‘體’, 능조작을 ‘理’의 ‘用’이라 하는 것이었다.

無情意造作者 此理本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也

다음과 같은 뜻이다. “無情意造作은 이 理의 本然之體요, 그 寄寓함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음은, 이 理의 至神之用인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理’를 다시 ‘체’와 ‘용’으로 나눔으로써, ‘理’ 스스로가 현상과 실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 동과 정은 ‘체’와 ‘용’으로 비유될 것이다. 그리고 ‘체’와 ‘용’은 궁극적으로 能動靜이며, 이것이 그의 태극이다. 따라서 “理自有用 故自然而生陽生陰也”인 것이다. 이렇게 그의 ‘理’는 ‘용’이 있음으로써 양을 낳고 음을 낳게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理’가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퇴계의 ‘이’는 인간존재의 사단에서 유추한 것으로서, 그는 이것을 자연의 원리에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의 ‘理’가, 어떻게 자연의 ‘理’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퇴계는, ‘理’의 ‘용’으로서의 “生陽生陰”의 자연관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가 ‘理’를 능조작의 질료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가, ‘理’를 천리로서 순수활동적 존재로 보고, ‘氣’를 주로 形氣的인 면, 즉 雜駁活動的 존재로 본 데서 기인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는, ‘理’는 귀하고, ‘氣’는 천한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그의 “理貴氣賤”의 사상은 성리학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理’가 순수형상과 순수동작을 포함하는 혼연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氣’는 다만 구체화의 원리로서, 모든 현실적 사물의 존재원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상의 모든

사건은 ‘氣’의 활동의 결과요, 그 열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자는 이미 ‘道’를 말함으로써, 세상만물의 존재원리를 알려주고 있다. 그는 《도덕경》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視之不見名曰夷 聽之不聞名曰希 搏之不得名曰微 此三者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象之象 是謂惚恍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能知古始 是謂道紀

“道는 形이 없으므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夷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이것을 希라 하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微라 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는 세상을 밝힐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위도 밝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으며, 繩繩하여 이름지을 수 없으며, 無의 세계로 복귀하니, 이것을 無狀의 狀, 無象의 象이라 하며, 이를 일컬어 惚恍이라 한다. 이것을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 태초의 道를 잡아서 현재의 有를 다스린다. 진실로 古始를 아는것, 이것을 道紀라 한다.” 이처럼 노자의 ‘도’는 순수형상이요 순수동작이다. ‘道’는 形이 없으며, 소리가 없고, 또한 象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섞여서 하나의 혼연일체로서, 하나의 ‘도’를 이룬다. 그리고 그 ‘도’는 無狀之狀, 즉 순수형상이며, 無象之象, 즉 순수동작으로서 세상만물을 낳고 기른다. ‘도’는 앞과 뒤의 구별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여 만물을 생성한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요, 그러면서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만물의 생성자이다.

퇴계는, 태극을 能動靜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주자가 말한 “理有動靜 故氣有動靜”을 “理自有用 故自自然而生陽生陰也”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理’는 스스로 ‘用’이 있음으로써 양을 생하고 음을 생한다는 것이다. 음과

양은 ‘도’의 운동에 있어서 二個의 정반대의 극으로서 우주적 길의 순환 양식을 이루고 있다. 陰陽의 구조는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의 순환성이다. 그리고 음양의 역학적인 특성은, ‘太極圖’라 불리는 고대중국의 상징으로서 도해되고 있다. 이 도표는 어두운 음과 밝은 양이 서로 대칭적으로 배열된 것이지만, 이 대칭이 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순환운동을 강하게 암시하는 회전적인 대칭이다. 끊임없는 운동을 통하여 회전대칭을 형성하고, 양은 주기적으로 시발점으로 돌아가고, 음이 그 극에 달하면, 양에게 자리를 내준다. 이렇게 음과 양은, 두 대립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존재가 실현되는 동양적 ‘도’의 운동의 원리다. 음과 양의 상호작용은 ‘도’의 모든 운동을 인도해 주는 원리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삶과 우주적 존재의 원형의 체계이기도 하다. 《주역》은 이와 같은 체계를 완성시킨 책이다.

陰과 陽의 상호작용은, 역동적인 의미에 있어서만, 즉 그 과정과 상호작용에 의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亞原子와 素粒子들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칭의 개념은, 입자들의 충돌과, 그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규칙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자물리학에서, 대칭이란 반사와 회전에 의한 것 이외에도, 많은 다른 작용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事象들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추상적, 수학적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들은 입자나 입자집단에 적용되고 있으며, 입자의 속성들은 그 상호작용과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관 되어 있으므로, 그 대칭은 입자들을 포함하는 과정인 상호작용에도 역시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칭 조작이 유용한 이유는, 그것들이 보존법칙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원자적 입자의 세계는, 사건들의 동적인 網체계로 기술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근본적인 구조나 실체로서 보다는, 오히려 변화와 전환의 구조로서 표시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특히 일체의 것들을 역동적이며, 일시적이며 迷忘으로 여기는 불교사상

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불교에 있어서의 이 세계는, 변화와 유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실체는 없는 것이다. 동양의 신비주의와 종교들은, 한결같이 이 세계를, 변화와 운동, 유전과 유동의 동적인 원리로서 이해하였다. 동양철학의 이 동적인 특성은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것이다.

동양의 신비가들은 우주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망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그 상호연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었다. 우주의 망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하여 움직이고 성장하며 변화한다. 현대물리학에서도 역시 우주는 그와 같은 관계의 망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처럼, 이 망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현대물리학은 인정하게 되었다. 《주역》은, 이 세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易之爲書也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易은 항상 곁에 두어야 하는 책이다. 도됨은 자주 옮기고, 변동하여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六位를 두루 유동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것의 정해짐이 없고, 剛柔가 서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일정한 방식이 될 수 없고, 다만 변화의 진행에 맡길 뿐이다.” ‘도’는 영원한 변화라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휴식이 없는 움직임이요, 여섯 개의 빈 자리, 즉 육위를 통한 유동이다. 그리고 도는 고정된 법칙이 없는 상승과 하강이요, 그러면서 서로 강유가 바뀐다. 따라서 변화만이, 이 세계의 모든 작용의 주재자이다. 이처럼, 주역에 의하면, 물리적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동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도’의 우주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유전적인 단계들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역》에 의하면, 모든 변화들이 單卦와 中卦의 구조들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單卦와 重卦는, 陰과 陽의 역동적인 상

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며, 우주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반영되는 ‘道’의 모형들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상황들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 흐름과 변화속에서의 단계로서 보여질 뿐이다. 그리고 입자물리학에서의 입자들의 반응의 channel처럼, 변화의 구조들은 다만 변화모형의 상징적 표상일 뿐이다. 만약 퇴계가, ‘理’를 “生陽生陰”하는 ‘용’의 실체로 보고, 그것을 변화와 역동적인 존재의 원리로 이해하였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理’가 노자의 ‘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퇴계는 ‘理’를 우주생성과 인간행위의 주재자로 보고, ‘氣’를 형기면에 국한시켰다. 그는 ‘理’를 절대자로 생각한 반면에, ‘氣’를 인육의 所從來로 보아, 그 압박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는 ‘理’는 天理의 순수성, 고귀성, 및 존엄성임에 비하여, ‘氣’는 항상 압박성과 비천성을 드러내게 된다. 퇴계는 말한다.

理本其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 非氣所當勝也

“理는 본래 極尊無對하여 物에 命하고, 物로부터 命해지지 아니하니, 氣의 마땅히 이길 바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理’가 物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러면서 物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는 절대자임을 보게 된다. 따라서 ‘理’는 ‘氣’를 이기고, 物을 지배함으로써 세상만물의 생성과 존재의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理’가 왕이라면 ‘氣’는 일하는 백성에 해당할 것이다. 사실, 고대사회나 봉건사회에 있어서 노동은 천한 것이었다. 노동은 물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힘이기 때문이었다. 왕은 계획하고 명령하였으며, 백성들은 그것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쇄를 통하여 하나의 세계가 가능하였다. 왕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요, 백성들은 왕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다. 그러나 힘이나 노동은 사물이요, 이 세계의 실재인 것이다. 물질과 energy가 이 세계의 근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이 현대과학의 이론이 이루어 놓은 성과 중의 하나이다.

퇴계가 만약, ‘理’를 Platon의 idea나, Aristoteles의 eidos, 혹은 Heraclitus의 logos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理’는 추상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Platon에 있어서 idea는 신에게 창조된 것이요, 그것은 감각의 세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무시간적인 idea를 어떻게 신이 창조하였는지 생각하기 곤란하다. Platon적 idea, 또는 形相은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사유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만약 idea를 창조하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때 그의 사유는 먼저 그 사유의 대상으로서 이제 만들려는 ‘Platon적 꽃’을 가지지 않으면, 그 ‘꽃’을 창조하려고 결심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무시간적인 것은 창조될 수 없다. Parmenides가 지적한 바와 같이, Platon의 idea론은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Platon에 있어서는 신은 모든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다만善한 것만 창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퇴계의 ‘理貴氣賤’의 사상은 Platon의 사상과 다를 바 없다. 퇴계의 “理貴氣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人之一身 理氣兼備 理貴氣賤 然理無爲而氣有欲 故主於踐理者 養氣在其中 聖賢是也 偏於養氣者 必至於賤性 老莊是也

“사람의 一身은 理와 氣를 겸비하는데, 理는 귀하고, 氣는 천한 것이다. 그런데 理는 無爲요 氣는 有欲이다. 따라서 踐理를 주로 하면, 養氣는 그안 에 있으니 성현이 이것이요, 양기에만 기울어지면, 賤性함에 이를 것이니 노장이 이것이다.” 퇴계는, “理貴氣賤”의 사상을 도덕적 선악의 윤리적 문제로 까지 발전시켰다. 그는, ‘理’는 極尊無對이므로 순선이며, ‘氣’는 유욕이기 때문에 유선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리학에 있어서 ‘理’는 所以然, 所當然이었으므로, ‘理’는 필연적으로 純善이요 무악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퇴계는 성리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理’가 극존무대이므로 純善이라는 퇴계의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백성은 유선악, 이른바 악에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왕은 순선이요, 백성은 악이라는 논리같은 것이다. 지배자가 극존무대이기 때문에 순선이라면, 이것은 권력이 선이라는, Nietzsche의, 이른바 ‘권력의지’에 다를 바 없다. Nietzsche에 있어서의 권력은 정의요, 이것은 다름아닌 선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지배자는 생물학적으로 우수하며, 고귀하고,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열렬한 권력에의 충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수한 민족이나, 지배자는 동정심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온순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갖는다 해도, 되도록이면 적게 가져야 한다. Nietzsche는 이처럼 초인애의 의지와, 정복자의 영광을 강조하였다. Nietzsche에게 있어서 전민족의 비참은, 하나의 위대한 인간, 혹은 초인의 개인적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Nietzsche는 말한다.

이 모든 조그만 민중들의 불행을 다 합하여도, 강자의 느낌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을 제외한다면, 한 총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처럼 Nietzsche는, 지배자의 영광과 감정에 호소하는 반윤리적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사실 도덕적 선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만약 자연법칙에 따라 인간의 윤리적 가치가 결정된다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책임이 없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구조와 별개를 이루고 있다. Kant에 있어서, 도덕성의 본질은 법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지만, 이성적 존재만이 ‘법의 이념’에 따라 행할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의지에 의하여 행위를 할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을 그 인간자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Kant에게 있어서 참다운 도덕적 행위는 ‘인격이 자기목적’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수단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고,

그 자신이 목적인 인격이요, 가치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퇴계의 “理貴氣賤”의 사상은, 정신을 물질보다 낮게 보는 Descartes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으며, 지배자를 피지배자보다 위대하며 선하다고 생각하는 Nietzsche의 사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물질과 따로 분리된 실재가 아니며, 더군다나 자연법칙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다. 자연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우주의 존재는 선악을 초월하며, 아니 그 이전이다. 인간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주가 있었고, 자연법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연법칙에 따라 인류가 생겨난 것이다. 퇴계의 생각처럼 만약 ‘理’가 세상만물을 낳고, 이것이 세상만물의 원리라면, 무엇 때문에 ‘天人’을 일관하는 순선으로서의 ‘理’가 유선악으로서의 ‘氣’와 함께 혼연일체로서 손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절대자가, 무슨 까닭으로 상대적인 유선악의 세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절대자의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와 무관한 것이고, 비록 그런 세계가 있다. 하여도, 이 덧없는 상대적 세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주만물이, 절대자요 순선인 ‘理’로부터 나왔다면, 어찌하여 이 세계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선과 악의 목적은 무엇인가.

Platon은 선을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는 과학과 진리는 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선은 본질과는 다르다. 그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본질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라고 Platon은 말한다. 그에 의하면, 변증법에 의하여 절대선을 인식함으로써 叡智界의 궁극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변증법이 수학자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까닭은, 이 선 때문이다. Platon철학에 있어서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현상과 실재의 구별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현상과 대립되는 실재는 완전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선을 인식하는 것이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퇴계가 ‘理’를 실재, ‘氣’를 현상의 원리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논의는

Platon적으로 옳은 것이다. 사실 Platon에게 있어서 현상계는 하나의 환상이요, idea만이 실재였다. idea만이 선이었다. 그러므로 ‘선의 idea’는 ‘idea의 idea’이다. 이런 의미에서 Platon의 ‘idea의 idea’는 퇴계의 순선, 즉 ‘理’에 해당한다 하겠다. Platon은 말한다. “idea은 모든 사물 속에 顯現해 있다.” 이와 같은 말은, idea이 모든 사물의 존재 근거이며, “idea이 사물 속에 현현하여 있지 않다면, 세계란 다만 무의미한 사물들의 집합일 뿐, 아무런 내용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ton에 의하면, “사물들은 변하는 것이나 idea은 불변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감성적 대상들은 그의 idea과 같이 되고자 열망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사물의 목적은 idea에 있다. 모든 사물들은 각각 그들의 idea을 ‘分有’하게 되고, 그러나 idea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이며, 선한 것이 아니다. 퇴계가 ‘理’를 감성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理’를 Platon적 idea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가 사건과 사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氣’를 물질적 사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 역시 Platon적 의미에서 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idea처럼 불변의 실재가 아니며, 변화와 流轉의 연쇄에 불과할 뿐이다. 어떤 물질, 어떤 정신도 불변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일 불변의 실재가 있다 하여도,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이 세계와 독립된 불변의 세계가 따로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과 독립된, 영원한, 불변의 인간이 따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 퇴계는 말한다.

曰理外無氣 氣外無理 固不可斯須離也 而其分則亦不可相紊而無氣別也 況陰陽五行 本非二物 是以於五行則置陰陽中而必含其四德 以示五行爲一陰陽而各一其性也 四德則圈書於五行之裏 以示理終不雜乎氣而亦不離乎氣也

다음과 같은 의미다. “理 밖에는 氣가 없고, 氣 밖에는 理가 없으니, 진실로 잠깐이라도 서로 떨어질 수 없으나, 그 분수로 보아서는, 또한

서로 섞인다 해도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음양오행은 본시 二物이 아니므로, 오행을 음양 가운데 두되, 반드시 사덕을 포함하여 오행이 하나의 음양이 되어서 각각 그 性이 하나가 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사덕은 오행 속에 圈하고 써서 理가 마침내 氣에 섞이지고 않고, 또한 氣에서 떠나지도 않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理’와 ‘氣’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理貴氣賤”의 결론에 도달한다. 分數로 보아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理氣’의 혼연일체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음양과 오행도 마찬가지다. “천명이란 뜻을 들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曰天 卽理也”, “하늘은 즉 理다.” 퇴계는, ‘元亨利貞’의 四德을 하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四德의 실상인 ‘誠’을 통하여, 만물이 형상으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때에 四德은 항상, 음양오행이 유행하는 때에, 그 속에서 만물을 命하는 근원이 되고, 만물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아 형상이 되는데, 이것은 만물이 ‘元亨利貞’의 이치를 갖추어 ‘性’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 있어서 ‘性’의 條目은 ‘仁義禮智信’의 다섯 가지이다. 그러므로 퇴계에 있어서는, ‘性’은 만물의 존재이유다. 그리고 궁극목표라 할 수 있다. 퇴계는, ‘天人’의 구별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스러움과 愚昧함, 사람과 物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氣 때문이라는 것이다. ‘氣’가 그렇게 한 것이지, ‘元亨利貞’이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四德이 언제나 음양오행의 유행 속에서 만물을 명하는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氣’에 의하여, 어떻게 이 세계가 선과 惡, 聖과 愚昧, 혹은 人과 物로 이분화되는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사덕은 ‘理’의 근본구조요, ‘理’는 하늘이 아니던가. 하늘이 어떻게 선과 악, 혹은 성과 우매를 포함할 수 있는가. 만약 하늘이 선과 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면, 하늘은 ‘理’가 될 수 없고, ‘理’와 ‘氣’를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는 ‘理’와 純善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또한, ‘理氣’가 혼연일체로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섞이어 분별

된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한, 사덕이 五行 속에 권하고, 써서, ‘理’가 마침내 ‘氣’에 혼합되지도 않고, 또한 ‘氣’에서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양오행의 존재이유가 ‘性’이 하나가 됨을 보이는 데에 있고, 사덕의 존재이유가, ‘理’는 ‘氣’에 섞이지도 않고 또한 氣에서 떠나지도 않는 것을 보이는 데에 있다면, 만물의 존재이유가 ‘仁義禮智信’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규범적 체계로서 물리적 구조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자연에 대한 擬人主義的 설명은 자연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성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사실 자연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고 천진무구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방식은 불가사의할 뿐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이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와 허위도 생각과 말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신을 정신 아닌 여러 사물과 결합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에는 생각도 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리도 허위도 없을 것이다. 선도 악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물의 존재이유가 ‘仁義禮智信’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理’가 ‘氣’에 섞이지도 않고, 또한 ‘氣’에서 떠나지도 않는 것을 보인 것이 사덕이라 하지만, 사덕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理’가 氣에 섞이지도 않으면서 왜 떠나지도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理’가 우주만물에 내재하는 logos로서, 세상만물의 질서의 형식이라면, 그것은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며, 관계와 성질로 표시되는 어떤 추상적 구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理’가 ‘天人’을 일관하는 절대자로서 음양오행, 세상만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음양오행, 만물만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퇴계의 학설은, 다분히 인간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퇴계가 ‘理’를 인간존재의 四端에서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理’를 자연의 ‘理’로 하였으며, 그 ‘理’의 ‘用’으로써

“生陽生陰한다”는 자연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퇴계는, “理本其尊無對”라고 함으로써, ‘理’를 극존무대의 지배자의 위치에 올려 놓는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理’는 순선이며, ‘氣’는 유선악, 즉 악이 된다. ‘理’가 ‘物에 命하고, 物로부터 命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氣’가 마땅히 ‘理’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理’는 무위요, ‘氣’는 유욕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는, ‘理’를 주로 실천하면 성현이 되지만, 養氣에만 기울어지면 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자와 장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極尊無對가 善이 되고, 賤性的의 표상으로서 노장을 들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퇴계는 ‘理’를 無爲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理’는 善이 된다. 아마도 퇴계는, ‘氣’를 소위 精力으로 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력 없이는 인간의 정신과 몸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활동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통일된 혼연일체로서 존재한다. 죽은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까닭은, 정력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정신과 육체의 활동은 energy, 즉 힘을 통하여 가능하다.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는 energy의 역동적 구조에 불과하며, 물질 역시 energy의 한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理’를 실천하든지, 혹은 ‘氣’를 실천하든지 아무튼 정신과 육체의 관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 때에 정신과 육체는 따로 분리된 실재가 아니라서 점에서 퇴계의 이원론적 사상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퇴계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아마도 정신은 선이요, 육체는 악이 될 것이다. 정신은 무형이고 육체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형 유형의 구분 역시, 너무나 단순한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정신도 육체의 어떤 환경에 불과하며, 육체 역시 정신의 어떤 환경에 지나지 않을 뿐, 궁극적인 실재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理貴氣賤”, 혹은 ‘理’는 善이요, ‘氣’는 악이라는 퇴계의 사상은 너무나 단순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성리학에 근거하고 있다 하겠다.

퇴계는, 노장의 세계를 養氣의 세계라고 함으로써, 이것을 천하게 여기고 있다. ‘氣’를 천하고,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노장의 사상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노장의 세계는 우주와 만물을 포함하는 자연이요, ‘道’는 다름 아닌 자연법칙이다. 그러면서 노자의 ‘道’는 자연법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 우주의 본체였다. ‘道’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 기른 채하지 않는다. 여기에 노자의 ‘道’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道’는 선악을 초월하며, 어떤 인간적인 모든 사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무위이면서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노자의 ‘道’는 유가에서 말하는 仁의 ‘道’도 아니며, 충서의 ‘道’도 아니다. 노자의 ‘道’는 자연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하늘과 땅은 본래 私心 없이 만물을 대하기를 풀강아지와 같이 한다. 성인도 천지를 본떠서 백성들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풀강아지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노자는,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을 비인격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지가 없는 사물로 보았다. 천지는 하나의 자연이요 비인격적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과 같이 人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이 없으므로 만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풀강아지, 즉 芻狗와 같이 여기는 것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성인도 천지를 본뜨기 때문이다. 성인이 성인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간이 자연의 ‘道’에 순응하고, 그것을 실현한다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자연의 기운, 즉 ‘道’는 限이 없다. 천지만물과 자연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道’, 즉 ‘氣’의 운행으로 인하여 만물이 저절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만물을 낳고 기르는 ‘道’는 자랑하지 않으며, 절대자도 아니요 인격적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의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道’는 “그리하여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이른바 “無爲自然”이요, ‘無’와 ‘道’는 다 같이 만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道’는 곧 ‘無’요, ‘無’는 곧 ‘道’이다. 그리고 만물이 모두 ‘無’에서 나온다. 그리고 노자에 위하면, 선과 악, 美와 醜, 賢明과 不肖 등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면 추함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대적인 개념들을 모두 소멸시키는 방법은 지식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면, 자연히 무욕해지고, 이 무욕이 모든 죄악을 없애지게 한다고 노자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만약 ‘天道’를 위반하고 자연의 질서를 시끄럽게 하면, 스스로 ‘自然法’이 있어서 그것을 벌한다고 함으로써, 노자는 인간과 사회가 자연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재난과 죄악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자연과의 융화와 화해를 통한 존재의 실현을 보게 된다. 자연에의 순응을 통한 저 무한과 우주와의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방식이다. 선과 악, 현명과 불초, 혹은 미와 추의 구별이 없는, 자연으로서의 위대한 세계다. 노자는 ‘道’, 즉 ‘氣’의 운행으로 세상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에 있어서의 ‘氣’는 악이 아니다. 오히려 ‘氣’는 ‘道’요, ‘道’는 ‘氣’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과 악, 미와 추를 초월한다. 이와 같은 상대적 개념들은 인간의 지식의 산물일 뿐이다. 이 점이 위대하다. 노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노자의 세계는 ‘氣’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세계처럼 악이 아니다. 노자의 자연을 천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퇴계는 적어도 자연에 관한 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인간 역시 자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연이 천한 까닭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하고 천함 역시, 인간적인 개념일 뿐이다. 상대적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실재의 사물이 아닌 것이다. 노자는 우주의 영원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久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다음과 같은 뜻이다. “우주는 영원하다. 우주의 영원한 까닭은, 그것이 자신의 목적의식 없이 저절로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도 이런 우주를 본받아서 저 자신의 사심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남을 앞세우려하므로 도리어 남보다 앞서게 된다. 자기자신을 초월하므로 도리어 자기자신을 존재하게 한다. 참으로 성인은 자기자신이 없으므로써 도리어 자기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우주는 영원하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우주와 같이,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다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 간다면, 우주와 같이 영원할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天地與我并生”, “天地는 나와 같이 동시에 생겼다.” 이와 반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도리어 하루살이와 같이 잠깐 동안만 존재할 것이다. 노자와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영원성을 “무위자연” 속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약, 자연임을 포기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인간은 순간적인 사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은, 우주의 존재가 선인지, 혹은 악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시초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알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시초가 있는지, 또는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Kant였다. 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이 문제를 ‘순수이성의 이율배반’, 즉 모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주에 시초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간에 그 문제는 똑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Kant는 이 문제를 모순이라 하였던 것이다. 사실 Kant의 두 주장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동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Kant의 시간은 우주의 존재와 독립된 것으로서, 영원히 과거로 무한히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사건과 독립된 시간은

없으며, 공간 역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대물리학은 우주가 먼 과거로부터 팽창하고 있으며,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폭발’의 시기에는 우주의 밀도와 시공간의 曲率은 무한대였을 것이다. 시공의 曲率이 무한대가 되는 점을 ‘특이성’이라 한다.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대폭발’의 순간에는 우주의 크기가 零이었으므로 무한히 뜨거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하여 개량, 수정되고 있다. 무슨 까닭으로 우주는 시초를 가져야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우주의 시초는 그처럼 뜨거웠는가. 왜 우주는 큰 규모에서 그처럼 균질할까.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우주는 ‘경계치’에 그처럼 가까운 팽창율로 팽창을 시작했으며 우주가 국부적으로 불규칙한, 이른바 우주밀도의 요동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러나 Hawking은 말한다. “우주는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 밖의 아무것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창조도 파괴도 안된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대폭발’의 원인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폭발’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노자의 우주가 현대물리학의 우주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에는 목적이 없으며, 어떤 절대자의 의지도 개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념이나 규범적 체계로 우주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의 본질과 생성의 원리에 선악의 개념을 포함시킨 퇴계의 사상은 유가의 사상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퇴계는 ‘理’를 절대자로 보고 ‘理’가 物에 명하고, ‘氣’와 더불어 세상만물을 생성한다고 믿었다. 또한 ‘理’는 logos로서, ‘不動의 動者’요, ‘不靜의 靜者’인 동시에 그것은 不生不滅, 不增不減의 존재였다. 그리고 ‘理’는 음양오행 만물만사의 근본이 된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우주의 원인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주는 진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법칙은 지배와 피지배

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연관된 그물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자연법칙은 반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확실성의 근거가 된다. 퇴계의 말처럼 ‘理’가 ‘氣’를 지배하고 이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의 존재원리가 될 수 없다. 자연은 상보적 원리를 통하여 개별적 사상을 실현하고 그것을 하나의 통일로 완성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logos로 표시되는 필연의 세계는 존재치 않는다. 현대물리학의 量子科學은, 고전과학의 두 지주인, 인과율과 결정론을 분쇄하였다. 그리하여 인과필연의 자연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으로 변용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결정론적 자연관으로서의 우리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질은 energy이며, energy 역시 물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물질과 energy는 같은 것이다. 객관적인 자연의 기술은 微視世界에서는 불가능하며, 原子물리학은 관찰자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부분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 준다. 따라서 Heisenberg에 의하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질문방식 속에 나타난 자연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이성의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또한 Einstein의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절대적인 시간은 없으며 공간 역시 그러하다. 시간과 공간은 ‘시공연속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우주전체를 통하여 일정한 순간을 정의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한 순간의 우주’를 절대적인 것처럼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관측자에게서 독립된 세계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퇴계의 ‘理’와 ‘氣’가 혼연일체로서 세상만물을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속체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때에 우리들은, ‘理’와 ‘氣’를 하나의 ‘場’으로 보아도 좋을지 모른다. ‘場’을 통하여 물리적 세계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사실 물리적 ‘場’은 하나의 기능이요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量子場’은 물리적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亞原子的 세계에 관한 물리학자들의 ‘量子場’에 의한 해석의 배후

에 있는 직관은, 세계에 대하여 자신들의 체험을 궁극적인 근본적 실재로 설명하는 동양의 神秘家의 직관과 매우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여러가지 ‘場’들을 모든 물리적 현상을 묶을 수 있는 단일의 ‘場’으로 통일시키려고 시도하여 왔다. 특히 Einstein은 그의 생애의 만년을, 그러한 ‘統一場’을 탐구하는데 바쳤다. ‘量子場’은 근본적인 물리적 실체로 여겨지며, 공간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연속적 매체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립자들은, 단지 그 ‘場’의 국부적인 응결에 불과하다. 이것은 energy의 집결로서 그것들은 다만 왔다가 다시 가버림으로써 개체의 특성이 소멸되고, 바다의 ‘場’으로 융합된다. Einstein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場이 극도로 강하게 집중된 공간의 영역들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물리학에서는, 場과 물질의 양자를 위한 것이 있을 수 없다. 場이 곧 유일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場’은 곧 물질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Einstein과 같이,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기반에 있는 실체를 유일한 실재로 여겼다. 따라서 모든 물리적 사물들이나, 현상적인 양상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환상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동양의 神秘家의 이와 같은 실재는, 물리학자의 ‘量子場’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의 본질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며, 모든 개념과 관념들은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量子場’은 겨우, 물리적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는 잘 정의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아마도 불교의 法身이나, 도교의 ‘道’, 혹은 Hinduism의 ‘梵’도 어쩌면 물리학에서 연구되는 현상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상들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統一場’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모든 현상들을 떠받치고 있는 실재는 어떤 형태도 초월하고 있으며,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노자의 ‘道’는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그것은 하늘이요 땅이요, 그러면서 우주만물에 가득 차 있

다. 그것은 無限定者요, 비어 있으며, 만질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만물의 어머니요, 그 생성자다. 이처럼 동양의 근본적인 실재는 때때로 無形, 無明, ‘空’, 또는 太虛로 불리우며, 그러나 ‘空’은 단순한 ‘無’가 아니다.

그것은 虛無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만물의 본질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퇴계의 ‘理氣’ 사상은 통합적인 이론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선과 악, 혹은 귀와 천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될 것이다. 사실 퇴계의 이론을 따른다 하여도, ‘理氣’의 혼연일체로서 이루어지는 ‘場’은, 선도 악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천할 방법도 없는 일이다. 만약 ‘理’가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氣’를 사용하여 만물을 생성하게 한다 하여도, 만물은 이미 ‘理’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氣’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理’의 책임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집을 짓는데 벽돌을 사용하였다 하여, 집의 잘되고 잘못됨의 책임을 벽돌에게 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理’가 선이고 ‘氣’가 악이라면, ‘理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부분적으로 선이고, 부분적으로는 악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모든 책임은 ‘理’에게 있는 것이다. ‘理’는 절대자요, ‘氣’를 이기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양오행 만물만사의 본질이요, 근본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는, 퇴계는 ‘理’를 동적 物로 말하고 있다.

向也 但有見於本體之無爲而不知妙用之能顯行 殆若認理爲死物 其去道 不亦遠甚矣乎

“먼저 다만 본체의 무위만 보고, 妙用の 능히 나타나 행해지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거의 理를 死物로 인정한 것 같으므로, 그것이 道를 相去함이 또한 심히 멀지 않은가.” 여기서 퇴계는, ‘理’를 활동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능력이 있는 이른바 能造作의 살아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퇴계의 ‘理’는, idea으로서, 형상으로서 혹은 logos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정으로서 능조작으로서 혹은 동적 物로서의 이원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주자는 ‘理’를 所以然과 所當然이라 하였다. 그러나 필연으로서의 존재의 세계는 이미 존재치 않는다. 현대물리학은 인과필연의 자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의 세계 역시 필연의 법칙이 아니다. 퇴계는 말한다.

曰天地之間 理一而氣萬不齊 故究其理則合萬物而同一性也 論其氣則分萬物而各一氣也

다음과 같은 뜻이다. “천지 사이에 理는 하나이지만, 氣는 만가지로 같지 않다. 그 理를 궁구하면, 만물을 합하여 性을 하나로 같이 하였으되, 그 氣를 논하자면, 만물은 나뉘어져 각각 氣를 하나씩 한다.” ‘理’는 공허하고 공허하다. 그렇기 때문에 ‘理’가 ‘理’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가 없다. ‘理’는 사람에게 있거나 만물에 있거나 간에, 진실로 더하고損함이 없이 하나가 되지만, ‘氣’에 이르러 비로소 陰과 陽의 서로 대립된 형상이 있어서, 서로 그 근본이 된다. 따라서 陰中에 陽이 없을 수 없고, 陽中에 陰이 없을 수 없다. 陽中에 陰이 없을 수 없다. 또한 陰中の 陽 가운데, 또 陰이 없을 수 없으며, 陽中の 陰 가운데 또 陽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한하고, 그에 따른 상대 역시 무한하다. 따라서 퇴계의 ‘理’는 하나요, ‘氣’는 만물 가운데 나뉘어져 하나씩 존재해야 하므로, 수없이 많으며 또한 만가지로 같지 않다.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理’, ‘氣’ 및 음양이 혼연일체의 ‘場’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場’의 물리적 현실이 곧 세상만물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퇴계의 ‘場’이, 음양오행, 만물만사의 실재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사물의 실현의 ‘場’으로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統一場’으로서의 실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한다. ‘量子場’이나 다른 물리적 ‘場’은, 다만 素粒子

나 물리적 현상의 겨우 일부만을 설명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場’은 理와 氣의 이원적 구조 때문에, ‘場’으로서의 실재에 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理’와 ‘氣’의 개념 역시 불확실하다. 그것은 형이상학에 너무 친밀하다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상이 너무나도 인간의 도덕적 세계에만 치우친 감이 분명하다. 퇴계의 사상은 논리적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繪畵的 분위기인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그가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논리를 초월하고 있다. 아마도 이 세계는 논리를 초월하고 있는지 모른다. 논리는 사물과 사상의 이성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관계와 성질로 대표되는 이 세계는, 아마도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리라. 그러나 모든 사물이 논리에 구속될 수는 없고, 더구나 이 우주는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우주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것을 최고선으로 부르는지 모른다. 불교는 이 세계의 근원적 실재로서 ‘空’을 든다. 우주만물의 근원적 실체다. 우주만물은 ‘空’ 그 자체이며, 조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연은 正邪가 없는 존재요, 그 현상은 참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은 조화와 균형의 결과인 것이다. ‘空’은 실재로서 허무가 아니며, energy로 충만된 ‘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空’은 ‘有’에 불과하며, ‘有’는 ‘無’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에서는 energy를 $E=hf$ 로 표시한다. 여기서 E 는 energy이고 h 와 f 는 각각 Planck 상수와 振動數이다. 여기서 Planck 상수, h 는 우주에 존재하는 보편상수로서 ‘作用量子’이다. 이 ‘작용양자’가 우주 속에 균일하게 분포됨으로써 ‘空’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물질의 궁극적 입자다. 세상만물은 이렇게 ‘空’의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상대적 모습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空’은 energy의 입자라 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실재다. 그것은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상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요, 세상만물의

실상으로서, 이 세계의 실현의 주체가 된다. '空'은 보편적 존재로서 不生不滅, 不增不減, 혹은 不垢不淨의 본체이다. 'energy 보존법칙'은 우주에 충만한 이 '空'의 항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이 우주는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며 존재요, energy의 커다란 분위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만물이 태어나고 죽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해와 달, 별과 구름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퇴계의 '場'이 '空'이나 '統一場'으로서, 물리적 실재에 도달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